

“중국의 딥시크 공습, AI 패권 경쟁 속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 정책 토론회(안)

□ 목 적

- 최근 중국의 딥시크(DeepSeek) 급부상은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 체계가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음. 딥시크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GPT-4 수준의 성능을 구현하며, 화웨이, 무어스레드 등 주요 기술과 협력하여 자국 AI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음. 이는 단순한 기술 투자를 넘어, 정책적 인센티브, 인프라 지원, 규제 프레임워크 등 통합적 접근이 혁신을 촉진하는데 필수적임을 입증하는 사례임
-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AI를 미래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자국 AI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전략적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특히, 미국, 중국 간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도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미국) 2025년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이후,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며, 5,000억 달러 규모의 ‘Stargate 프로젝트’를 통해 AI 인프라를 대규모로 확충하고 있음
- (EU) AI법(AI Act)을 통해, 글로벌 표준 수립을 시도하고 있으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중국) 2000년대초부터, 자국 시장 보호와 토종 플랫폼 기업 육성을 위한 배타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딥시크와 같은 혁신 기업을 중심으로 AI 생태계를 성장시키고 있음

- 반면, 한국은 AI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내수 시장 중심의 사업구조, 글로벌 확장 부족, 높은 규제 장벽 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국내 AI 스타트업은 시장 진입 장벽과 높은 규제 부담으로 인해 지속 가능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본 토론회는 세계 주요국의 AI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 AI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특히, 시장진입 장벽 해소와 규제 완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논의함으로써,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 제 : “중국의 딥시크 공습, AI 패권 경쟁 속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 정책 토론회(안)

□ 주 최 : 국회 유니콘팜

□ 주 판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플랫폼법정책학회

□ 일 시 : 3월 12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2 세부일정

시간	구분	세부내용
9:50~10:00	등록	현장 등록
10:00~10:03		(환영사) 유니콘팜 소속 의원
10:03~10:13	개회	(개회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기대 센터장
10:13~10:15		(개회사) 플랫폼법정책학회장 이봉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장내 정리 및 단체 사진 촬영

시간	발표주제	발표자
< 발 표 >		
10:15~10:35 (20분)	AI 패권 경쟁과 국가전략: 미국, 중국 사례를 통해 본 정책적 시사점	김상배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
10:35~10:55 (20분)	딥시크 충격과 한국 AI 스타트업의 생존전략: 글로벌 경쟁력 vs 규제의 덫	강형구 교수(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10:55~11:00 (5분)	장내 정리	
< 종합토론 >		
좌장: 황태희 교수(성신여대 법학부)		
11:00~11:55 (55분)	토론	-최난설현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원 대표(엘리스그룹) -김지예 COO(잡플래닛) -조영기 국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주연 전문위원(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진호 과장(과기부인공지능기반정책과)
11:55 ~	질의 응답 및 폐회	